

##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참석

회사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나민수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천현진 위원

###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인가 싶더니, 엇그제부터는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가을은 인생과 같다. 형형색색이면서 짧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짧아서 더욱 소중한 이 계절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 과정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권역단 체장인 노광규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우리 여수MBC 이전 사업까지 거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MBC 이전 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 주소 이전의 배경은 목표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이호인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계획들을 기반으로 회사가 앞으로 추진 과정에도 잘 대응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5년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인 대표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사옥 이전 진행 사항과 관련해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순천시와 사옥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협약 체결, 본사에 사명 변경, 이전 일정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상태임. MBC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끝낸 상태. 먼저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마음으로 서운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위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입장에서 기꺼이 이해주고자 노력해주셨고 회사 이전과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대변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이전을 생각한 것은 살 길이라고 봤기 때문. 사옥, 콘텐츠, 경영 위기 등 복합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음. 국정감사 관련하여 참석한 의원의 발언 중 특구 입주 관련한 MBC의 자격에 의문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웹툰, 애니메이션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p, 유통에 관한 공동 기획 등 최종적으로 특구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위해 입주하는 것이나, 이것과 관련 없는 내용만 언급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음. MBC의 기회발전특구 입주는 특혜가 아니라 유통과 제작과정에서 특장점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주하는 것이며 이것과 관련하여 더 준비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음.

본사가 콘텐츠의 미래를 위해 외부스튜디오를 만들었으며 여수MBC는 외부스튜디오, MBC경남과 협업하여 특구 입주하여 역할을 할 것임. 본사와는 OTT까지 확장된 콘텐츠 유통, MBC경남과는 편성협약에 따라 콘텐츠 유통 및 IP개발에 공동협력할 계획임. 이전 작업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음.

### 콘텐츠센터장

10월 정규제작 프로그램 지속 제작. 트로트클라스 용인 스튜디오에서 2일 동안 제작. 특집방송 관련, 1019여순사건 주간 라디오특집 1948 그녀들의 기억 방송(여성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 채록) 방송과 함께 영상자막버전 제작하여 유튜브 업로드, 당신의동화책(AI활용) 12월 초 방송 준비중, 섬마을여행사 시즌2 오동도, 장도편 방송, 섬특집 2부작 올해 제작하여 10월 추

석 특집으로 연속 편성하여 방송. 곧바로 전국편성으로 이어져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주 방송. 한국의 둘레길 제작완료 돼 8부작 방송중(계열사 공동제작) 10월 22일 여수 금오도 비령길 방송, 해외 유통까지 준비중. 고흥 인구소멸 문제 다른 푸른 공의 연대 제작 하여 방송 준비중. 지역MBC 공동 AI학습데이터 구축사업 지속하여 수행중. 올해 안 1차 정부사업 마무리 예정.

11월 고흥 유자축제 축하기념 '트로트클라쓰' 제작 예정. 한국의 둘레길 5편 방송 예정  
여수 섬박람회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확대 관련하여 섬박람회 전국편성, 섬마을여행사 지속하여 방송 중, 11월 마지막 돌산도편 제작하여 방송 예정, '어바웃우리동네'에서 섬 관련내용 꾸준히 다루고 있음. 고흥 소식 확대 관련하여 캠페인, 축제, '푸른공의연대' 특집 제작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여순사건 관련하여 77주년 추념식 생중계, 라디오 특집 방송으로 다룸.

### 보도센터장

10월 2026년 지방선거 각 지자체 예상후보 기획보도, 여순사건 특별기획, 섬박람회 관련 특집 기획, 캄보디아 관련 실종사건 보도, 11월 취재계획으로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 지역산 단활성화, 누리호 4차 발사 등 고흥 뉴스 제작 예정. 보도특집 현재 2개 제작 중 석유화학 위기 진단, 순천미래 세계의 빛 11월 제작 마무리하여 방송 예정임.

### 방송사업센터장

10월 여수아카데미 여수 인구위기와 여수미래 관한 주제로 진행. 낭만버스킹, 청춘버스킹 10월달로 해서 마무리, 정채봉동화잔치 11월1일 행사 및 시상식 진행 예정.

11월 여수아카데미 자녀교육 큐레이팅 관련 진행 예정, 청소년 봉사상 접수중 12월 시상 예정, 대형 뮤지컬 킵키부츠 11월 개최예정, 12월 발레 호두까기 인형 행사 준비중.

### 위원장

먼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 전국에 생방송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씁쓸함과 무기력을 그동안 자랑스러운 고향이라고 생각해왔던 여수와 순천이 협력의 도시가 아니라 갈등의 도시로 비춰지는 모습에 아마 시민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타 지역 지인들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까 우려하고 특히 10여 년간 순천 시민과 동부 지역의 시민들이 염원과 자긍심을 담아온 국가 정원이 정치 갈등의 소재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국회와 언론에서 감정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면 호남권 지자체는 협력보다 다툼에 익숙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는 곧 순천, 여수, 광양이 함께 추진해야 될 RE100 산업단지, 관광벨트, 교통 인프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고요. 중앙정부나 기업 투자자들 역시 분열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대규모 국비 지원이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공동 브랜드가 갈등의 이미지로 묶여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방송사 이전이 상징적으로 한 도시의 문화, 미디어 역량, 다른 도시가 흡수한 사례로 남는다면 문화 미디어 인프라가 축소되고 상생 대신 제로섬 구조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수는 정체성과 자존심 손상, 순천은 국가 정원과 신뢰

도 손상 그리고 두 도시 모두 협력 브랜드 손상이라는 부정 효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수 순천이 당장 협력해야 될 숙원 사업이 체크해 보니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광양만큼 2차 전지 배터리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광양망간 RE100 산업단지 및 해상풍력 수소 허브 구축이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관광생태문화벨트, 섬박람회,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그리고 국제관광생태문화축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강 및 케미칼 산업위기대응 및 특별지역 지정 및 재생 그 사업은 정치 행정 리스크, 산업 환경 리스크, 그리고 브랜드 리스크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갈등할 개별 도시가 아니라 광양만권 공동체라는 장기 비전을 갖고 함께 성장해야 될 광역 원입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시키는데 MBC와 시청자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BC 보도국은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또 오늘 시청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나은 방송 만드는 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수 순천이 함께 더불어서 가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수에서 시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박성주 위원님 아마 제가 이 얘기하고 또 마음도 무거운 부분도 있을 텐데 예 잘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주 위원**

지역 소통을 위하여 MBC가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 **박병현 위원**

여수 행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섬박람회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공항 활주로 준비문제, 로컬라이저 철거문제 등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여수 시 소극적행정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음.

남시 관련하여 인프라의 부족과 낚시꾼을 바라보는 분위기 개선 필요함. 장비, 미끼 등 현지에서 조달하고, 대형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여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낚시에 인식이 아직 좋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조애숙 위원**

해양환경오염문제 심각함 이와관련하여 취재 필요. 지역민들에게 어려울 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프로그램이나 보도 제작을 요청.

#### **천지연 위원**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노력이 필요. 지엽적인 내용에서 시작해 광역권, 전국적인 이슈화를 다루는 MBC의 노력이 지속되다 보면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함.

섬박람회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해외유통 관련하여 그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함. 섬박람회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문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 산업으로 확장하며 이러한 것이 잘 준비돼야

함. 해외유통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장한다면 섬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학과 연계하여 글로벌화 하고 산업화 가 가능하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나민수 위원

도서 지역의 낙후화 문제. 기업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음. 방송에서 다뤄주셔서 감사했음. 낙후문제를 보면서 섬박람회를 유치한 여수시의 위상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해양쓰레기 문제 등 행정기관에서 홍보활동민 활성화, 캠페인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산단위기 관련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협력하겠음. 여수MBC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내년 도 지방선거 구도에 이용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됨.

#### 안인수 위원

여수MBC 뉴스,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음 지역민의 소외되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균형감 있게 다뤄주길 바람.

여수 시민들의 여수시 행정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최근 개최된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개최장소, 콘텐츠의 부족 등이 느껴짐. 행정력 부족한 부분을 알려서 시민들의 여론을 다뤄주길 바람.

#### 박소정 위원

정확한 기획의도를 반영한 프로그램들 제작되고 있어서 만족함. 여순사건 라디오 특집 홍보가 잘 이뤄주길 바람

행사의 취지와 핵심이 잘 담겨진 보도가 이뤄지길 바람. 뉴스앤이슈 토포로그램 제작 시 제목 선정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패널 선정에 있어서 주제에 맞는 선정 요청.

정치인의 역할을 다루고 견제해야할 언론의 역할 수행이 부족함. 지자체 30주년을 기념하여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등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지방자치제가 잘 이뤄지고 견제가 이뤄지는 사례를 발굴하여 다루는 기획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함.

여순사건 제대로 다뤄주는 프로그램 필요

#### 박경숙 위원

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할 수행 및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역할 필요

#### 천현진 위원

라디오 특집과 관련하여 좋은 기획과 탁월한 섭외로 인해 여론이 관심이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함. 기억의 서사를 다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유통되서 좋았고 팟캐스트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IP를 가지고 대학과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콘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교육자료,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관광의 기록물로서도 계속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유튜브 채널 관련하여 바다한끼, 휴ASMR 등 업로드가 오래된 채널 관리가 안되는 채널이 있음. 알고리즘들이 단순히 노출 수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업로드나 그다음에 채널의 활동성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콘텐츠들은 사실은 시기가 타는 것들이 아니라

Evergreen 콘텐츠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계속 축적이 될수록 가치가 있는 것임. 섬박람회 관련된 콘텐츠를 좀 이거는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좀 연결을 지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브랜드를 좀 일관성이나 콘텐츠의 소비를 좀 가져가는 것을 기대함.